

###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 책을 읽고 있는 주현이를 보며 스님이 바라보고 있다.

#### 안성 굴암사 '절집 아이들'

### "궁핍한 생활에도 꿈 가득"

8명의 아이들과 칠순의 노스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자리 잡은 굴암사는 이들의 보금자리다. 올 해 사미계를 받는 만형 몽준(19)이부터, 미용사가 꿈인 윤미(17), 7년 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곳에 들어온 소라(17), 보람(16), 성민(14)이 삼남매. 주지 보덕 스님(70)을 '할머니'라 부르는 막둥이 주현(8)이까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다.

#### 외양간에도 방 꾸며

보덕 스님이 '엄마 할머니'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속가 어머니가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그러다가 스님은 아예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발원하고 서울 상계동 수락산 밀 월세방에서 1982년 굴암사로 자리를 옮기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 둘씩 키우다 보니,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만 해도 벌써 50여 명. 동네 사람들은 이곳 아이들을 '절집 아이들'이라 부른다.

제작년 2월, 이들 가족에게 큰 아픔이 있었다. 전기누전을 인한 화재로 이들의 50여 평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아이들 책이며, 옷가지는 물론, 쌀까지 모조리 불타 버렸고, 가족이나 조들리는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졌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을의 빈 외양간을 개조해 임시로 방 6개를 들여 작년 여름을 냈다.

보덕 스님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늘었다.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성민이 교복 맞춰 주는 것부터, 주현이의 공책 값,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선아(19)의 등록금 문제까지 돈 들어 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한 달 200만 원 넘게 드는 야생 식구 살림살이가 스님들의 시주금만으로는 힘들다. 굴암사가 복지시설도 아닌 까닭에 정부지원 또한 없다.

유치원 교사가 꿈이라는 주현이는 오늘도 소리 나지 않는 종이 건반을 두들긴다. "피아노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려면 피아노를 꼭 배워야 한데요"라며 주현이가 조심스레 장래 소망을 내비친다. 지켜보던 스님의 환율이 길어진다.

"절이었을 땐 백방으로 탁발해 가며 아이들을 키워 왔지만, 이제

#### "나이 들어 탁발도 못해"

나이 먹어 다리에 마비가 와 그나마 할 수도 없어 답답해. 제작년에 불만 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보덕 스님은 끝내 말문을 잊지 못한다. 연신 다리를 매만지는 스님. 훗날 주현이가 명달아 스님의 다리를 주무르지만, 스님은 마다한 채 법당으로 향했다. 잠시 후 굴암사 법당에서 간절한 염불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031)676-4221 계좌: 농협 192-02-110622(양문자)  
안성 = 김철우 기자

#### 3월 1일 (금)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백일장' = 만해 한용운 스님은 뛰어난 문학가이자 3·1운동에 참가했던 독립지사. 만해 스님을 뜻해 기리는 만해백일장이 오전 10시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 평소 같고 뒤은 문학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 백일장의 장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수여하는 '만해대상'을 받는다. (02)739-4448

■좋은벗들 제10기 통일대화마당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이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한평생 통일 운동에 매진했던 홍 의장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좌. 좋은벗들은 1일부터 금요일마

#### 신행 캘린더

다 통일운동가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10차례의 강좌를 마련한다. 장소는 서초정토회관. 오후 7시 30분. (02)587-8996

■용진신행회 '도솔암순례' = 용진신행회는 고창 도솔암을 찾아가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선운사 도솔암에 찾아가 보물 1200호 고려 마애불상을 만나보자. 그윽한 미소에 담긴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출발은 아침 6시 30분 울지로 6가 국립의료원 옆. 참가비 2만 5천원. (02)2279-1191

#### 3월 2일 (토)

■소적새마을 '자원봉사' = 소적새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데 너무 밀고 교통이 불편해서...

하지만 이런 걱정은 이제 끝. 소적새마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매주 화·토·일요일 오전 7시30분 초계사 앞에서 출발. 셔틀버스운행을 기념해 이날 자원봉사자와 소적새마을 식구간의 만남의 행사도 갖는다. (03)762-9670

#### 3월 3일 (일)

■불교신행연구원 '성지순례' = 불교신행연구원은 안성 청룡사와 칠장사를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마련했다. 칠장사는 고려시대 고승 혜소국사가 용맹정진했던 곳. 칠현산방 마루에 앉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 출발은 서초구청 앞 오전 8시. 참가비는 3만원. (02)587-6613

■신라문화원 '어린이 문화학교' =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됐다. 경주지역 역사 문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어린이 문화학교'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일요일에 열린다. 이번에 찾아가는 역사 현장은 남간사터당간지주, 창림사터, 포석정 등. 도시락과 필기구 등 각자가 준비. (054)774-1950

#### 3월 4일 (월)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은평노인복지관 '노인 강좌' =

#### 3월 5일 (화)

■불광사 '바리밀교육' = 부처님 생애와 보살의 길, 불교 음악, 불교 의례, 불교 역사, 포교방법론 등 교리에서부터 포교론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8월 입재해 5월 7일까지 10주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교재는 불광사에서 배부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 (02)413-6060

## "도움 필요한 이웃 돕기 불자의무"

### 우리 절 우리 신도

#### 수국사 신도회장 김경애 보살

22일 낮 11시 40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 공양간.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오면서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애(54) 보살을 비롯한 수국사 신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조금 있으면 노숙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여들기 때문이다.

"특별히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절에서 보통 먹는 것과 똑같이 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죠."

김 보살은 벌써 4년째 점심 시간마다 다른 신도들과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도심 속에 절이 있다 보니, IMF 직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수국사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나 몰라라 하기 어려워 매일 먹는 밥과 반찬에 수저 하나 더 놓는 것이 계기가 됐다. 많은 때는 하루 1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요즘도 평일에는 10~20명, 금요일이면 40여 명이 찾는다.

"처음에는 절말감과 죄질감이 빠져 거칠게 행동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때문 사비가 붙어 애를 먹기도 하고요. 요즘은? 오면 합장으로 인사하기도 하고, 경내에 있는 지장보살

상을 지나면서도 합장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6년째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각종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는 김 보살은 절 일이라면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앞장선다. 경내 청소부터 매달 초하루 법회와 보름 법회 준비까지 절 구석구석 김 보살의 손길이



◇22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수국사에서 신도들과 함께 노숙자 급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애 보살(사진 맨 오른쪽).

#### 노숙자들 무료 점심봉사 4년째 계속

#### 아침에불 생활화... "신도간 협동심 절실"

말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수국사에는 '후원 봉사부'라 해서 음식 공양을 준비하는 팀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이들이 노숙자 무료 점심 봉사를 맡고 있지만, 김 보살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나와 함께 일을 거든다. 하다못해 도량 청소에서부터 꽃 심고 가꾸는 일, 초파일 등 만들고 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지만 사람들은 그저 '절에 다니는 신도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정도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보살은 "내가 먼저 하지 않고 회장이라고

지지만 한다면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되묻는다. 수국사에 다니지 20년 가까이 된다는 김 씨에게는 늘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저마다 불심을 갖고 절에 다니지만 신도들 사이에 협동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한 가지 원을 세웠다. 신도들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에 위안이 되는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김 씨는 신도들의 경조사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이 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욱 신

경을 썼다. 상을 당한 신도 집을 찾아가 시중보고 부침개 부치며 음식 준비를 거들고, 신도들과 함께 영안실에서 엄불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신도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어야 절에 다닐 마음도 생기고, 신심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자연히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을 테고 말입니다."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김 씨는 사실 경전 공부도 많이 하는 불자다. 1991년 불교방송 경전반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공부. 경전반 졸업생들끼리 공부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공부만으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눈뜨면 집에 들은 자서라도 아침 예불을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 주현의 말

#### 자용 스님 수국사 주지



도심 속에 자리잡은 우리 절은 지금도 불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어린이 집 개원과 미륵존 여래를 조성하는 눈앞에 두고 있고, 황금 법당 불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불사가 어찌 저 혼자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모두, 절 일을 내일 같이 여기고 도와주는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김경애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절의 굿은 일은 물론 신도들의 경조사 하나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나서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아 여름이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점심 급식에도 열심입니다.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배운 법문 하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불자이기도 합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목행족(知目行足)하면 도정량지(倒淸亮之)'라는 법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은 글귀를 배우더라도 행(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ista.com

## 해동불교대학 (Hae Dong Buddhist College)

#### 국제학부학위 프로그램 과정(통신)

해동불교대학은 15년 전인 1987년에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도하는 불법 흥보를 위한 포교사 법사 삼장법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 그동안 2천여 명의 전법 역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불교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 당시로서는 불교의 대중 교육을 선도해 가는 불교교육 기관이며 전법의 전초기지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해동불교대학은 그동안 미국 LA 불교대학과의 학위프로그램에 의하여 50여명의 B.A. M.A. 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으며, 세계불교계와의 인맥과 문화교류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와 시대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키는데 첨병역할을 할 세계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국제학부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국제학부 학위 과정(통신) Degree Course, International Dept.**
- 불교철학전공 (Buddhist Philosophy)
  - 세계불교문화전공 (World Buddhist Culture)
  - 세계불교역사전공 (World Buddhist History)
  - 불교영어과 (Buddhist English)
  - 입학자격 : 각종 불교대학, 강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이상 수료자
  - 해외정규대학 3,4학년 B.A. 과정에 편입
  - 연령제한 (단, 25세 이상 60세 이하)
  - M.A. 과정은 B.A. 학위 소지자(통신, 1년 1회 현지 출석강의)
  - Dr. 과정은 M.A. 학위 소지자(통신, 1년 1회 현지 출석강의)

- 중국 상해 화동사범대학 어학 연수 및 유학
- 중국 상해 중의대학 입학 안내
- 세계불교지도자과정 (World Buddhist Leadership Course)
- 국제 법사 삼장법사 승정과정 (國際 法師 三藏 法師 僧正 課程)
- 해외 사찰이나 단체에서 수행체험 연수 유학을 원하시는 분
- 학위 과정이나 지도자 과정에 꼭 관심 있으신 분만 자기 신본과 전화를 밝히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 신분과 전화를 밝히지 않으면 상담하지 않습니다.
- 모집기간 : 2002년 2월 15일 ~ 3월 25일

## 해동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전화 02)3672-5042 팩스 02)3672-5043

**후원단체**  
ABCP (아시아불교평화회의) HBDTA (해동불교법사회) KBOM (Korean Buddhist Overseas Mission) SBN (The Seoul Buddhist News) 해외제대대학 및 단체 인도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 바른불교 · 위운불교 ·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부처님의 바른불교를 현실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 가정 생활과 나의 삶 속에서 정토를 이룩하고자 하는 생활의 길잡이, 지혜의 등불

- 교과과정**
- 불교사상의 핵심 : 실천적 불교사상
  - 불보론 :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
  - 교학①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 교학② : 실천불교의 꽃, 대승불교
  - 불교변천사① : 인도불교, 중국불교
  - 불교변천사② : 한국불교, 세계불교
  - 경전론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수행론 : 참 나를 찾아서
  - 신앙론 : 예불, 발우공양
  - 불교와 사회① : 불교와 환경
  - 불교와 사회② : 불교와 복지
  - 불교와 사회③ : 불교와 평화
  - 불교와 사회④ : 불교와 통일
  - 특별과정 : 특강, 수행수련

- 모집대상 및 입학금**
- 참가 대상 : 바른불교를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 접수 기간 : 2002. 3. 15까지
  - 참가비 : 6만원 (한 학기)
  - 접수 및 문의 : 각 지역 정토법당, 각 지역 대학 사무국 www.jungto.org
  - 본대학은 4학기 2년 과정입니다.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문제없도록 진행됩니다.

지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 및 연락처	지역	교육기간	요일	시간	접수 및 연락처
서울	3.12-6.25	매주 화	주/아	02)587-8993	대전	3. 8-6.28	매주 금	주간	042)253-8990
부산	3.11-6.24	매주 목	주/아	051)557-2746	청주	3. 8-6.28	매주 금	아간	043)284-5951
대구	3.13-6.26	매주 수	주/아	053)744-3025	마산	3.12-6.25	매주 화	주간	055)247-8991